



## 新羅 眞智王代の 王權強化와 彌勒信仰

Strengthening royal powers and belief in Maitreya in the King Jinji's period of Silla dynasty

---

저자 (Authors)	김덕원 Kim Deok-Won
출처 (Source)	<a href="#">사학연구</a> , (76), 2004.12, 33-55 (23 pages) <a href="#">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a> , (76), 2004.12, 33-55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사학회</a>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8185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81858</a>
APA Style	김덕원 (2004). 新羅 眞智王代の 王權強化와 彌勒信仰. 사학연구, (76), 33-5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5 11:4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 眞智王代の 王權強化와 彌勒信仰

金 德 原\*

머리말

- I. 中古期 彌勒信仰의 流行
- II. 眞慈師와 末尸郎에 대한 檢討
  - 1. 眞慈師에 대한 檢討

2. 末尸郎에 대한 檢討

- III. 眞智王代 彌勒信仰의 政治的 意味  
맺음말

## 머리말

彌勒은 梵語로 Maitreya이며, 慈氏 또는 慈尊이라고 한다. 미륵은 釋迦가 入滅하고 56억 7천만년 후에 兜率天에서 閻浮提인 지상으로 내려와 龍華樹 아래에서 3번의 說法을 행하여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미륵에게 구원을 받으려는 신앙의 형태를 彌勒信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上生信仰과 下生信仰으로 구분된다.<sup>1)</sup> 이러한 미륵신앙은 三國에 佛敎가 전래된 이후에 일찍부터 신앙되었으며,<sup>2)</sup> 이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져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sup>3)</sup>

\* 명지대학교 강사.

- 1) 金三龍, 1983 『新羅 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社, 31-32쪽.
- 2) 金煥泰, 1987 「三國時代의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 東國大 出版部.
- 3) 彌勒信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八百谷孝保, 1937 「新羅社會と淨土敎」 『史潮』 7-4; 趙愛姬, 1973 「新羅における彌勒信仰の研究」 『新羅佛敎研究』 山喜房佛書林; 李基白, 1975 「新羅 初期 佛敎의 貴族勢力」 『震檀學報』 40; 1986 『新羅思想史研究』 - 潮閣; 金三龍, 1983 앞의 책; 金煥泰, 1987 앞의 논문; 金杜珍, 1987 「新羅 中古時代의 彌勒信仰」 『韓國學論叢』 9; 金惠婉, 1992 『新羅時代 彌勒信仰의 研究』 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張志勳, 1995

新羅에서 彌勒信仰이 유행하였던 것은 王權과 貴族勢力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즉 王室이 轉輪聖王 내지 釋迦佛로 상징되었다면, 貴族은 彌勒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이해와 함께 신라의 미륵 신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三國遺事』에 수록되어 있는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에 대한 기록이다.<sup>5)</sup>

이 기록은 신라에 불교가 公認된 이후 中古期の 불교신앙 중에서 특히 미륵신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花郎徒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이 기록을 자세하게 분석하면 미륵신앙과 화랑도와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록은 眞智王代의 政局運營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기의 政治史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서 『三國遺事』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sup>7)</sup> 따라서 本稿에서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중고기에 미륵신앙의 유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三國遺事』의 기록을 토대로 眞慈師와<sup>8)</sup> 未尸郎에<sup>9)</sup>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

『三國時代 彌勒信仰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7 『한국고대 미륵신앙 연구』 집문당.

4) 李基白, 1975 앞의 논문; 1986 앞의 책, 80-87쪽.

5) 『三國遺事』 권3, 塔像4,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6) 花郎徒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도 『三國遺事』의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를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7) 『三國遺事』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金煥泰, 1986 『彌勒仙花攷』 『佛教學報』 3·4; 1987a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社; 金岸基, 1989 『花郎과 彌勒信仰에 대하여-神仙寺遺構의 調査를 기틀로-』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74 『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金煥泰, 1970 『僧侶郎徒考』 『佛教學報』 7; 1987a 앞의 책; 李基白, 1975 앞의 논문; 1986 앞의 책; 金惠婉, 1978 『新羅의 花郎과 彌勒信仰의 關係에 대한 研究-半跏思惟像을 中心으로-』 『成大史林』 3;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金惠婉, 1992 앞의 논문; 河廷龍, 1993 『『三國遺事』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條 譯註』 『普照思想』 9; 張志勳, 1995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8) 장현규는 '眞慈가 媒介於人者를 의미하므로 眞慈보다는 眞慈가 옳다고 하였다(1994 『삼국유사에 나타난 이른바 未尸郎, 眞慈師에 대하여-未尸郎이 아니라 未尸郎이다-』 『公州大論文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진지왕대의 왕권강화에 미륵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先學들의 많은 叱正을 바란다.

## I. 中古期 彌勒信仰의 流行

法興王代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 초기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彌勒信仰이었다. 비록 언제부터 彌勒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신라 최초의 사원인 興輪寺에 彌勒佛을 봉안하였고,<sup>10)</sup> 또 興輪寺의 '輪'이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轉輪聖王을 의미한다는 사실은<sup>11)</sup> 중요한 示唆를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대부터 미륵을 신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륵신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眞興王代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A-1. 王子 銅輪을 세워 王太子를 삼았다(『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7년).
- 2. 3월에 王太子 銅輪이 죽었다(『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33년 3월).
- 3. 眞平王이 즉위하니 諱는 白淨이고, 眞興王의 太子 銅輪의 아들이다. 母는

集』 32, 13쪽). 그러나 本稿에서는 '眞慈'로 통일하고자 한다.

9) 강헌규는 '末尸'는 '末尸'의 잘못으로 媒人·媒婆·仲介人·仲買人의 뜻이며, 末尸郎과 貞慈師가 媒介於人者인 동일인이라고 하였다(1994 앞의 논문, 9쪽 및 12-14쪽).

10) 『三國遺事』 권3, 塔像4, 彌勒仙花·末尸郎·眞慈師, 李基白은 이것을 彌勒菩薩半跏像일 것으로 추정하였다(1975 앞의 논문; 1986 앞의 책, 84쪽).

11) 高翊晉, 1984 「韓國 佛教思想의 전개」 『韓國의 사상』 열음사, 13쪽.

金氏 萬戶(또는 萬內라고도 한다)夫人이니, 葛文王 立宗의 딸이며, 妃는 金氏 摩耶夫人이니, 葛文王 福勝의 딸이다(『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卽位年).

B-1. 眞智王이 즉위하니 諱는 舍輪(또는 金輪이라고도 한다)이고, 眞興王의 次子이다. 母는 思道夫人이고, 妃는 知道夫人이다. 太子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眞智가 즉위하였다(『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智王 卽位年).

2. 제25대 舍輪王의 諡號는 眞智大王으로 姓은 金氏이고, 王妃는 起烏公의 딸 知刀夫人이다. 大建 8년 丙申에 즉위하였다(『三國遺事』 권1, 紀異1, 桃花女 · 鼻荊郎).

위의 기록은 진흥왕 아들의 이름이 銅輪과 舍輪(또는 金輪)이라는 내용이다. 진흥왕은 아들의 이름을 동륜과 사륜(또는 금륜)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轉輪聖王의 이름이다. 그리고 전륜성왕은 彌勒信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진흥왕대에는 이미 미륵신앙이 전륜성왕과 관련된 이해와 함께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흥왕은 轉輪聖王思想에 입각한 理想國家를 건설하려고 하였다.<sup>12)</sup>

진흥왕대의 미륵신앙과 관련된 또 다른 자료는 八關會에 대한 것인데, 이 기록은 다음과 같다.

C-1. 10월 20일에 戰死한 士卒을 위하여 外寺에서 八關筵會를 열고, 7일만에 罷하였다(『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33년 10월).

2. (眞興王) 12년 辛未에 왕이 居柒夫와 仇珍 大角滄 · 比台 角滄 · 旣知 迺滄 · 非西 迺滄 · 奴夫波珍滄 · 西方夫 波珍滄 · 比次夫 大阿滄 · 未珍夫 阿滄 등 8將軍에게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백제인은 먼저 平壤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乘勝하여 竹嶺 이북 高峴 이내의 10郡

12) 金煥泰, 1967 「新羅 眞興大王의 信佛과 그 思想研究」, 『佛教學報』 5; 1987a 앞의 책, 56쪽.

을 취하였다. 이때에 惠亮法師가 무리를 이끌고 路上으로 나왔다.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筆禮로 揖拜하고, 나아가 말하기를 “옛날 遊學할 때에 法師의 은혜를 입어 性命을 보전하였는데, 지금 意外에 서로 만나니 어떻게 報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법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政事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대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거칠부가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니 왕이 僞統을 삼고, 처음으로 百座講會와 八關의 法을 設하였다(『三國史記』 권44, 列傳4, 居柒夫).

위의 기록은 진흥왕대에 처음으로 戰死한 士卒를 위하여 八關會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다.<sup>13)</sup> 팔관회는 在家 信者가 하루 동안에 8戒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8戒를 지키는 것은 兜率天으로의 往生과 彌勒이 下生할 때 彌勒佛에게 나아가기 위한 因緣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八關會가 設行되었다는 것은 진흥왕대에 이미 미륵신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가적으로 미륵신앙을 장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4)</sup>

이와 함께 신라에서 미륵신앙이 유행하였던 것은 王權과 貴族勢力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즉 왕실이 轉輪聖王 내지 釋迦佛로 상징되었다면, 귀족은 彌勒으로 상징되었으며, 이것은 각각 國王과 花郎으로 인식되었다.<sup>15)</sup> 그리고 귀족들이 미륵신앙을 수용한 이유는 미륵이 印度의 婆羅門 출신으로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불교가 귀족 중심으로 수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미륵신앙이었고,<sup>16)</sup> 이러한 영향으로 중고기에 미륵신앙이 유행하게 되었다.

13) 戰死한 士卒를 위해서 八關會를 개최하였지만, 이때에는 전사한 花郎과 郎徒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4) 金惠婉, 1992 앞의 논문, 37쪽. 그러나 張志勳은 三國時代 彌勒信仰의 수용 계층은 일반 백성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밑에서부터 수용되어 위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파악하였다(1995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53쪽).

15) 李基白, 1975 앞의 논문; 1986 앞의 책, 80-87쪽.

16)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13-15쪽.

## II. 眞慈師와 未尸郎에 대한 檢討

신라에서는 진흥왕대부터 彌勒信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眞智王代라고 할 수 있다. 먼저 『三國遺事』에 수록된 관련 기록을 인용하고, 그 기록에 등장하는 眞慈師와 未尸郎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 D. 眞智王 때에 와서 興輪寺에 중 眞慈(또는 貞慈라고도 한다)가 있어 항상 堂의 주인인 彌勒像 앞에 나가 發願하여 맹세하며 말하기를 “우리 大聖께서는 花郎으로 化하시어 이 세상에 나타나 내가 항상 辟容을 가까이 뵈고 받들어 시중을 들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이 날로 더욱 두터워지니, 어느 날 밤 꿈에 중 하나가 말하기를 “내가 熊川 水源寺에 가면 彌勒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眞慈는 꿈에서 깨자 놀라며 기뻐하여 그 절을 찾아 열흘 길을 가는데, 발자국마다 절을 하며 그 절에 이르렀다. 문밖에 탐스럽고 섬세하게 생긴 한 소년이 있다가 예쁜 눈매와 입맵시로 맞이하여 작은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객실로 안내하니, 眞慈는 올라가면서도 揖하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평소에 나를 모르는데 어찌하여 이렇듯 은근하게 대접하는가?”라고 하였다. 소년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서울 사람입니다. 스님이 먼곳에서 오시는 것을 보고 위로하였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소년은 문밖으로 나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진자는 속으로 우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절의 중들에게 지난 밤의 꿈과 자기가 여기에 온 뜻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기를 “잠시 저 아랫자리에서 彌勒仙花를 기다리고자 하는데, 어떻겠소?”라고 하였다. 절에 있는 중들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근심한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千山이 있는데, 옛날부터 賢人과 哲人

이 살고 있어서 冥感이 많다고 하오! 그곳으로 가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진자가 그 말을 따라 산 아래에 이르니, 山靈이 老인으로 변하여 나와서 맞으며 말하기를 "여기에 무엇 하러 왔는가?"라고 하였다. 진자가 대답하기를 "彌勒仙花를 보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노인인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水源寺 문밖에서 이미 彌勒仙花를 봤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진자는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내 달려서 本寺로 돌아왔다. 그런지 한 달이 넘어 眞智王이 이 말을 듣고 眞慈를 불러서 그 까닭을 묻고 말하기를 "그 소년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聖人是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왜 성인을 찾아보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眞慈는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들을 모아 두루 마을을 돌면서 찾으니, 단장을 갖추어 얼굴 모양이 수려한 한 소년이 靈妙寺 동북쪽 길가의 나무 밑에서 너울너울 춤추며 놀고 있었다. 眞慈는 그를 만나보자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彌勒仙花다"라 하고 나가서 문기를 郎의 집은 어디에 있으며, 姓은 누구신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郎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未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모두 잃어 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眞慈는 그를 가마에 태워 들어가 왕에게 보였다. 왕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國仙을 삼았다. 그는 花郎徒 무리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禮儀와 風教가 보통사람과 달랐다. 그는 風流를 세상에 빛내더니, 7년이 되자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眞慈는 몹시 슬퍼하고 그리워하였다. 未尸郎의 자비스러운 혜택을 많이 입었고, 밝은 德化를 이어 스스로 누우치고 정성을 다하여 道를 닦으니, 晩年에는 그 역시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 (『三國遺事』 권3, 塔像4, 彌勒仙花 · 未尸郎 · 眞慈師)

## 1. 眞慈師에 대한 檢討

### 1) 眞慈師의 傳統信仰의인 성격

진지왕대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三國遺事』에 기록된 인물은 眞慈師 (또는 眞慈)이다. 그는 興輪寺의 僧侶로 그곳에 모셔져 있는 彌勒을 받들었

다. 17) 이것은 그가 미륵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름인 '眞慈'가 慈氏인 미륵과도 어떤 특별한 관계를 보여 주므로 18) 眞慈師가 미륵을 신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眞慈師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의 生沒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진지왕대의 진자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壯年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따라서 그는 적어도 법흥왕대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진자사는 未尸郎이 '忽亡所在'한 이후 얼마 안된 시기, 즉 진평왕 초기에 죽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진자사는 법흥왕·진흥왕·진지왕·진평왕 등 中古期 전반의 4대에 걸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자사는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었던 법흥왕대와 그것이 발전을 거듭하였던 진흥왕대에 生長하면서 당시 불교의 경향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륵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자사는 미륵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던 승려였지만, 그는 傳統信仰(土着信仰)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彌勒仙花를 찾는 과정에서 老人으로 변하여 나타나는 山靈도 山岳神으로서 神仙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진자사의 이러한 성격은 후술할 未尸郎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진자사뿐만 아니라 미륵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던 승려들은 대체로

17) 李基白은 興輪寺는 彌勒을 모시고 있는 미륵의 道場이라고 하였다(1954 「三國時代 佛教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歷史學報』 6 ; 1986 앞의 책, 16쪽 주 21) 참조). 이것은 興輪寺가 花郎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8)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17쪽.

19) 『三國遺事』의 기록을 자세히 음미하면, 眞智王代の 眞慈師는 이미 어느 정도의 연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金煥泰도 眞慈師가 "나이가 지긋한 一位의 大師"라고 하였다(1970 앞의 논문 ; 1987a 앞의 책, 92쪽).

20)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22쪽.

전통신앙에서의 神仙에 대한 祭祀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巫覡의 전통을 계승한 祭司長의 성격이었을 것이다.<sup>21)</sup> 결국 이러한 성격이 역시 전통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花郎徒와<sup>22)</sup> 연결됨으로써 미륵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던 승려들이 화랑도와도 깊은 관련을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신앙은 神秘的이고 呪術的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신라에 전래되고 공인되던 시기의 불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외래종교인 불교가 신라에 수용되면서 전통신앙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巫佛習俗 또는 巫佛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불교가 전통신앙과 같은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하였다면, 이것은 일종의 密敎的인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따라서 신라에 전래되었던 불교는 呪術的인 경향이 강한 밀교적 성격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sup>24)</sup> 그러므로 신라에 밀교가 전래된 시기도 좀 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1)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22-24쪽.

22) 李基來, 1976 「新羅 花郎徒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69;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316-318쪽; 姜英卿, 1991 「新羅 眞平王代 花郎國仙의 設置」 『雪岡林采源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492쪽.

23) 洪潤植은 密敎가 在來 土俗信仰의 佛敎의 전개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1984 「新羅 泉龍寺 經營의 文化的 意味」 『馬韓·百濟文化』 7, 234쪽).

24) 일반적으로 新羅에 密敎가 전래된 것은 文武王代 明朗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金在庚은 眞平王代에 이미 三岐山을 중심으로 密敎가 擡頭한 것으로 보았고(1978 「新羅의 密敎 受容과 그 性格」 『大丘史學』 14, 4쪽), 권영택은 阿道가 宮中에 들어가 초기 밀교 경전에 관계하는 의례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1999 「新羅 佛敎受容에서의 密敎의 역할」 『石堂論叢』 28, 46쪽).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진평왕 이전에 신라에 밀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밀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朴泰華, 1965 「新羅時代의 密敎 傳來考」 『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文明大, 1976 「新羅 神印宗의 研究」 『靈檀學報』 41; 金在庚, 1978 앞의 논문; 鄭泰嶽, 1981 「韓國佛敎의 密敎의 性格에 대한 考察」 『佛敎學報』 18; 佛敎文化研究院 編, 1986 『韓國密敎思想研究』 東國大 出版部; 권영택, 1999 앞의 논문.

## 2) 眞慈師와 花郎徒와의 관련

진자사는 '僧侶郎徒'로서<sup>25)</sup> 花郎徒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진자사는 이미 승려나도였는데, 어떤 이유로 국선이 물러난 이후에 그 자리가 비게 되자 未尸郎을 맞이하였다고 한다.<sup>26)</sup> 이 견해는 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화랑도의 조직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郎徒들은 '黃卷'<sup>27)</sup> 또는 '風流黃卷'으로<sup>28)</sup> 불리는 일종의 名簿에 이름을 올리고 생활하였으며, 낭도로서의 기간이 끝나면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자신이 속한 門戶의 화랑과는 비록 主從關係的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평생을 두고 뜻을 같이하는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9)</sup> 이것은 好世郎과 惠宿을<sup>30)</sup> 비롯하여 金庚信과 丕寧子<sup>31)</sup> · 裂起 · 仇近<sup>32)</sup> 및 竹旨郎과 得鳥<sup>33)</sup> 등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화랑과 낭도와의 관계가 항상 정형화

25) 金煥泰, 1966 앞의 논문; 1987a 앞의 책, 69쪽; 1970 앞의 논문; 1987a 앞의 책 88쪽. 그러나 僧侶는 郎徒보다 教師로서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基白, 1954 앞의 논문; 1986 앞의 책, 45쪽; 李基東, 1979 「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 『歷史學報』 82; 1984 앞의 책, 336-337쪽; 朱甫暉, 1997 「新羅 花郎徒 研究의 現況과 課題」, 『啓明史學』 8, 108-109쪽. 특히 朱甫暉은 花郎徒 조직에서의 僧侶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教師의 성격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僧侶가 花郎徒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화랑도 단체들의 스스로의 결정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강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화랑도의 운영에는 승려를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국가의 의지가 관철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1997 앞의 논문, 109쪽).

26) 金煥泰, 1970 앞의 논문; 1987a 앞의 책, 95쪽.

27) 『三國遺事』 권4, 義解5, 二惠同塵. 鄭璟喜는 '黃卷'의 黃은 皇帝와 老子를 가리키는 黃老라고 하였다(1990 「三國時代 社會와 仙道」,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 一志社, 239-240쪽).

28) 『三國遺事』 권2, 紀異2, 孝昭王代 竹旨郎.

29) 盧泰敦, 1978 「羅代之 門客」, 『韓國史研究』 21 · 22, 5-6쪽.

30) 『三國遺事』 권4, 義解5, 二惠同塵.

31) 『三國史記』 권41, 列傳1, 金庚信 上; 권47, 列傳7, 丕寧子.

32) 『三國史記』 권42, 列傳2, 金庚信 中; 권47, 列傳7, 裂起.

33) 『三國遺事』 권2, 紀異2, 孝昭王代 竹旨郎.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낭도들은 어떤 화랑의 문호에 소속이 되면 그 관계가 평생에 걸쳐서 유지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이러한 관계에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낭도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화랑의 문호로 이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랑이 죽거나 아니면 화랑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면 그 화랑의 문호는 해체되고, 낭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다. 斯多畝의 낭도들은 그가 죽은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화랑의 문호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화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화랑이 전쟁에 참가하였을 때 낭도들의 많은 희생으로 그 구성원이 크게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낭도들을 새롭게 선발하거나 아니면 사다함의 낭도들과 같이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던 낭도들을 다시 영입하였을 것이다.

낭도들이 다른 화랑의 문호로 이동하였던 것은 자신이 소속된 문호의 화랑이 임기가 끝났을 때에도 가능하였을 것이다.<sup>34)</sup> 이러한 경우에는 낭도들의 연령이 어리거나 또는 그 문호에 소속된 기간이 짧았을 때 그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랑의 지위와 명성이러든가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도 낭도들이 이동하였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화랑도의 조직은 항상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낭도들이 다른 화랑의 문호로 이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자시는 미시랑이 '忽亡所在'한 이후에도 다른 화랑의 문호로 이동하지 않고 평생을 두고 미시랑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

34) 일반적으로 花郎은 15세에서 18세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3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거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李基東, 1979 앞의 논문; 1984 앞의 책, 337-341쪽).

다. 이것은 진자사가 미시랑이 '忽亡所在'한 이후에 '哀懷殆甚'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승려낭도로서 화랑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진자사는 마뜩이 화랑으로 化作하기를 기원하였고, 마침내 직접 彌勒仙花를 찾기 위해서 水源寺까지<sup>35)</sup> 열흘이나 걸리는 먼길을 '一步一禮'하며 갔다.<sup>36)</sup> 진자사가 이러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彌勒仙花를 받들려는 의지가 강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륵선화를 찾으려는 진자사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미륵선화를 찾으려는 진자사의 노력은 이후 진지왕이 직접 이 문제에 관여하기에 이르렀다. 국왕이 직접 관여하였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8)</sup> 진자사는 이러한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진지왕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마침내 미륵선화인 미시랑을 찾을 수 있었고, 그를 정성껏 받들고 섬기면서<sup>39)</sup> 많은 은택과 감화를 받았다.

35) 水源寺는 公州市 玉龍洞의 月城山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2-公州郡篇, 298쪽), 최근에 李南奭은 公州市 金鶴洞寺址의 물안주지역으로 비정하였다(2002 『水源寺와 水源寺址』 『湖西史學』 32, 21쪽).

36) 黃壽永은 三國末에 미륵신앙이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전래되어 이곳을 근거로 크게 유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1960 『百濟半跏思惟石像小考』 『歷史學報』 13, 21쪽), 대부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金三龍, 1983 앞의 책, 115쪽). 그러나 金杜珍은 당시 한강 유역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의 분쟁으로 眞慈師가 실제로 공주에 가지 못하였고, 진자사가 彌勒仙花를 구한 緣起說話는 공주지역이 미륵신앙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水源寺도 그 명칭으로 보아 미륵신앙을 구함에 있어서 원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1994 『百濟의 彌勒信仰과 戒律』 『百濟佛敎文化的 研究』 忠南大 百濟研究所, 48쪽)

37) 金德原, 2002 『眞智王의 卽位에 대한 再檢討』 『白山學報』 63, 219쪽.

38) 金德原, 2003 『新羅 眞智王代의 政局運營』 『梨花史學研究』 30, 59쪽.

39) 金貞淑은 眞慈師가 未尸郎을 花郎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에도 僧侶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1996 『新羅 花郎의 생활사 연구-人材로의 登用을 중심으로-』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472쪽). 그러나 진자사가 晩年까지 精修爲道하였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서 미시랑을 받들던 때에도 승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眞慈師와 眞智王과의 관계

진자사는 미시랑을 진지왕에게 추천하여 國仙으로 삼게 되었다.<sup>40)</sup> 즉 그는 미륵선화인 미시랑과 진지왕의 증계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진지왕이 미시랑을 國仙으로 삼은 것은 인재를 선발하여 발탁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세력으로 흡수하고, 이를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41)</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佛敎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진지왕이 미시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모든 과정은 승려인 진자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곧 진지왕이 정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자사는 진지왕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親舍輪系’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42)</sup> 이렇게 생각할 때 미시랑이 ‘忽亡所在’한 이후에 진자사 역시 晩年에 ‘不知所終’하였다는 기록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에서 미시랑을 찾는 과정을 살펴볼 때 진자사에게서 民衆指向의 인 성격을 느낄 수 있다. 당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sup>43)</sup> 이러한 상황에서 王室에서는 일반 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특히 새롭게 신라 영토로 편입된 지역의 服屬民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40) 朱甫暉는 花郎徒에 소속된 僧侶에 의해서 花郎도의 敎育내용과 인재의 천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1997 앞의 논문, 109쪽). 이러한 견해는 眞慈師가 未尸郎을 眞智王에게 추천하여 國仙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참조할 때 示唆하는 바가 크다.

41) 金德原, 2002 앞의 논문, 219-220쪽. 최근에 林淳敎도 진지왕대의 통치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지왕이 眞慈師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密命을 맡겼고, 未尸郎은 진지왕의 감춰진 세력에서 선택된 충실한 심복이었으며, 진지왕은 이런 미시랑을 이용하여 花郎徒를 통솔하게 하여 未曾有의 國仙制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2003 「眞智王의 改革과 花郎徒의 動向」 『清溪史學』 18, 37-38쪽).

42)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眞慈師가 ‘一步一拜’하였다는 기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진자사가 眞智王을 도와서 新羅를 理想國土化 하려는 마음이 그만큼 강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金德原, 2002 앞의 논문, 224-226쪽.

시대 상황의 변화가 진자사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그것은 또한 진지왕이 추진하려던 정책이었을 것이다. 미시랑을 찾는 과정에 진지왕이 관여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기에서 진지사와 진지왕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2. 未尸郎에 대한 檢討

### 1) 未尸郎의 傳統信仰的인 성격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未尸郎은 彌勒이 化作한 것이다.<sup>44)</sup> 그러나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미시랑은 眞興王代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륵선화인 미시랑이 진지왕대에 國仙이 되었다가 7년 후에 '忽亡所在'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미시랑은 전흥왕·진지왕·진평왕 등 中古期 전반의 3대에 걸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미시랑이 진자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10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5세 정도였을 것이다.<sup>45)</sup> 이때 그는 靈妙寺 동북쪽 길가의 路傍樹(見郎(樹)·似如樹·印如樹) 밑에서 너울너울 춤추며 놀고 있었다.<sup>46)</sup> 그런데 진지왕 때에는 아직 靈妙寺가 創建되기 이전이므로<sup>47)</sup> 이곳은 前佛時 七處伽藍의 하나인 沙川尾 지역이다.<sup>48)</sup> 이곳은 三韓時代의 蘇塗로 불리던 지역으로 古代信仰의 神聖地域이었고,<sup>49)</sup> 이러한 신성지역의 樹木은 전통신앙에서

44) 金庠基는 彌勒의 花郎化作 사상에서 彌勒仙花라는 특수 명칭까지 나타났다고 하였다(1969 앞의 논문, 4쪽; 1974 앞의 책, 57쪽).

45) 張志勳은 童子의 모습은 佛敎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神話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머니즘 체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995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79쪽 및 221쪽).

46) 이 표현에 대한 여러 견해는 河廷龍, 1993 앞의 논문, 193쪽 주 117) 참조.

47) 靈廟寺가 창건된 것은 善德王 4년(635)이다(『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4년).

48) 『三國遺事』 권3, 興法3, 阿道基羅.

49) 李基白, 1954 앞의 논문; 1986 앞의 책, 29쪽.

祭儀가 행해지던 곳이었다.<sup>50)</sup> 이와 같은 곳에서 미시랑이 춤추며 놀고 있었다는 것은 곧 수목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던 巫祭를 표현한 것이며,<sup>51)</sup> 미시랑은 그것을 담당하였던 司祭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52)</sup> 즉 미시랑은 神仙과 祭司長을 媒介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sup>53)</sup> 또는 토착의 신선신앙과 불교의 미륵신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sup>54)</sup>

이러한 사실은 미시랑의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시'는 '미리' 또는 '미르'로 발음되는데, '미리'는 龍의 우리나라 고유어이다.<sup>55)</sup> 龍은 불교 전래 이전의 신라 固有神으로서도 중요시되어 龍의 출현은 神意의 표현이었다.<sup>56)</sup> 따라서 미시랑은 재래의 龍神思想의 반영물로<sup>57)</sup> 龍과 관련된 傳統信仰(土着信仰)이 불교를 매개로 하여<sup>58)</sup> 왕권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신앙 중심의 귀족세력<sup>59)</sup> 왕권과 연결된 화랑으로 변화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미시랑이 전통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국선(화랑)이 될 수 있었던 것과 역시 전통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진자사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50) 金杜珍은 似如樹는 彌勒의 下生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未尸郎이 樹下에서 발견된 것은 赫居世나 閔智가 樹林 또는 枝下에서 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似如樹는 土着信仰의 祭儀가 행해지던 樹林 곧 始林의 전통과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1987 앞의 논문, 22-23쪽), 示唆하는 바가 크다. 三品彰英도 樹林은 祖靈의 誕生地로 파악하였고(1973 「古代朝鮮における王者出現の神話と儀禮について」 『古代祭政と穀靈信仰』 544-545쪽), 張志勳도 彌勒仙花에 등장하는 나무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宇宙論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世界樹(宇宙樹)의 모티프라고 하였다(1995 앞의 논문 ; 1997 앞의 책, 221쪽).

51) 姜英卿, 1989 「新羅 眞平王代 巫佛關係에 대한 一考察」 『淑大史論』 13·14·15, 22-23쪽.

52) 姜英卿, 1991 앞의 논문, 492쪽.

53)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23쪽.

54) 姜英卿, 1991 앞의 논문, 494쪽.

55) 梁柱東, 1954 『古歌研究』 博文出版社, 94-97쪽.

56) 井上秀雄, 1978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62쪽.

57) 張志勳, 1995 앞의 논문 ; 1997 앞의 책, 230쪽. 龍과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는 權相老, 1963 「韓國古代信仰의 一綱-미리(龍)信仰과 彌勒信仰에 對하여-」 『佛敎學報』 1 참조.

58)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19-23쪽.

59)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30쪽.

진자사는 진지왕의 도움으로 미시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모두 잃어 자신의 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미시랑을 단순히 天涯孤兒로 궁벽한 산골에 은거하던 미천하고 불우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60)</sup> 그러나 이것은 전통신앙과 불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미시랑이 어렸을 때 부모를 모두 잃어 자신의 姓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전통신앙이 불교에 융합되면서 세력을 상실하여 가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전통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미시랑이 진자사와 연결되어 불교의 미륵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국 전통신앙이 불교에 융합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未尸郎과 眞智王과의 관계

미시랑은 진자사의 천거로 진지왕에 의해서 國仙이 되었다. 그리고 진지왕의 뜻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국선으로서 ‘其和陸子弟 禮義風教 不類於常 風流耀世’하였다. 이 기록은 진지왕이 미시랑을 국선으로 임명한 이유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진지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시랑이라는 인재를 새롭게 등용하였던 것이다.

미시랑이 언제 국선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미시랑이 진지왕이 즉위한 직후에 국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7년이라고 하면 진지왕이 폐위되고 진평왕이 즉위하던 초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미시랑은 진지왕이 폐위되고 진평왕이 즉위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진지왕에 의해서 국선이 되어 진지왕의 뜻에 부응하였던 미시랑이 진평왕 초기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忽亡所在’하였다면,<sup>61)</sup>

60) 박순교, 2003 앞의 논문, 37쪽.

61) 金煥泰는 未尸郎이 7년 동안 國仙으로 있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은 世間の 인연을 끝내고 彌勒의 본래 위치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하였다(1987 앞의 논문, 50쪽).

그 이유는 진평왕의 정치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62)</sup> 즉 미시량은 자신을 국선으로 삼았던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진평왕을 중심으로 하는 '銅輪系'와 정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가 마침내 '忽亡所在'하였다고 생각된다.<sup>63)</sup>

미시량이 '忽亡所在'한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미시량이 진지왕의 즉위 초기에 국선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이다.<sup>64)</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시량이 진지왕을 만난 것은 15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시량은 진지왕의 재위기간에 국선으로서 3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거쳤고, 진지왕이 폐위되기 직전에 官職에 진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7년 후에 '忽亡所在'하였다면 진평왕 3년(581) 무렵이 된다. 이때는 진평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官制整備를 통한 政治改革을 실시하는<sup>65)</sup> 첫해로서 位和府를 처음으로 설치하던 때이다.<sup>66)</sup> 그리고 이때 미시량이 '忽亡所在'하였다면, 그는 22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는 진지왕의 폐위 직전에 국선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

62) 金德原, 2003 앞의 논문, 60쪽.

63) 이것은 眞智王代와 眞平王代の 佛教思想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진평왕대 이전에는 彌勒信仰이 유행하다가 이후에는 釋迦佛信仰이 유행하였다는 연구가 있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 즉 미륵의 化身인 未尸郎이 미륵신앙이 쇠퇴하고 석가불 신앙이 유행하자 '忽亡所在'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基白, 1975 앞의 논문; 1986 앞의 책;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1988 「新羅 眞平王代の 釋迦佛信仰」, 『韓國學論叢』, 10.

64) 이와 관련하여 『三國遺事』 彌勒仙花 · 未尸郎 · 眞慈師의 기록에는 『國史』를 인용하여 眞智王 大建 8년에 '始奉花郎'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진지왕대의 화랑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朴淳教도 이 기록에 주목하여 진지왕은 花郎徒를 통제한 未曾有의 國仙制를 시행하여 花郎制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화랑제도 전반에 걸쳐서 維新이 있었다고 하였다(2003 앞의 논문, 38-39쪽). 그러나 三品彰英은 이 기록이 진지왕의 즉위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1975 『三國遺事考証』, 下之一, 槧書房, 285쪽).

65) 金德原, 2002 『新羅 中古期 舍輪系の 政治活動 研究』, 明知大 博士學位論文, 64쪽.

66)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3년 봄 정월.

미시랑은 진평왕의 즉위 초기에 국선으로서의 수련기간을 거쳤고, 역시 관직에 진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7년 후에 '忽亡所在'한 시기는 진평왕 6년(584)이 된다. 이때는 진평왕이 建福이라는 年號를 제정하고,<sup>67)</sup> 親政을 실시하던 때이다.<sup>68)</sup> 그리고 미시랑은 25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필자는 첫 번째의 가능성을 택하고 싶다.<sup>69)</sup> 그 이유는 미시랑을 국선으로 임명한 것은 역시 진지왕이 즉위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평왕의 즉위 초기인 9년(587)에 미시랑과 같은 화랑 출신으로 추정되는 大世와 仇柒이<sup>70)</sup> 해외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진평왕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71)</sup>

### Ⅲ. 眞智王代 彌勒信仰의 政治的 意味

진지왕대에 미륵신앙이 유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신라는 스스로 轉輪聖王으로 자처한 진흥왕의 활발한 정복활동의 결과로 이전에 비하여 비약적인 영토의 확대를 이룩

6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6년 봄 2월.

68) 李晶淑, 1995 『新羅 眞平王代의 王權 研究』 梨花女大 博士學位論文, 41쪽.

69) 두 가지의 가능성 모두 未尸郎이 '忽亡所在'한 이유는 眞智王의 廢位 및 眞平王의 卽位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진평왕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朴淳教도 미시랑이 國仙으로 발탁된 것은 진지왕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고 하였다(2003 앞의 논문, 38쪽).

70) 金煥泰, 1970 앞의 논문; 1987a 앞의 책, 91쪽; 李基東, 1979 앞의 논문; 1984 앞의 책, 358쪽.

71) 金德原, 2003 앞의 논문, 70쪽.

하게 되었다. 그리고 확대된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하였다. 진지왕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이에 대한 의지도 나타나게 되었지만,<sup>72)</sup> 신라는 미륵신앙을 통하여 전륜성왕의 이념을 확립하면서 理想國土를 건설하는<sup>73)</sup>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진지왕대에 彌勒仙花의 기록이 전해지는 것은 결국 이러한 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전륜성왕을 자처하였던 진흥왕을 계승하고, 자신도 역시 전륜성왕이었던 진지왕대에 미륵의 화신인 미륵선화가 출현하는 것은<sup>74)</sup> 신라가 곧 樂土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즉위 초기의 진지왕에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戒律主義를 강조함으로써<sup>75)</sup>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즉위 초기의 진지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왕권을 강화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彌勒戒法이 律令制度和 함께 身分制度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76)</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진지왕은 진흥왕이 추진하였던 정책을 착실하게 계승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7)</sup>

72) 金德原, 1999 「新羅 中古期 舍輪系の 政治活動」 『白山學報』 52, 243쪽.

73) 蔡印幻, 1977 『新羅佛敎戒律思想研究』 國書刊行會, 246쪽.

74) 金惠婉은 轉輪聖王과 彌勒佛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관념은 가장 이상적인 佛國土의 실현이라고 하였다(1992 앞의 논문, 33쪽).

75) 洪潤植, 1985 「三國時代의 佛敎受容과 社會發展의 諸問題」 『馬韓·百濟文化』 8, 72쪽; 1988 『韓國佛敎史의 研究』 敎文社, 24쪽; 張志勳, 1995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157쪽.

76) 洪潤植, 1984 앞의 논문, 240쪽. 한편 百濟의 戒律主義와 관련하여 金三龍은 울령사회의 지향으로 파악하였고(1983 앞의 책, 89쪽), 金杜珍은 국가체제의 정비로 파악하였다(1994 앞의 논문, 61쪽).

77) 眞智王은 眞興王代의 政치를 '繼承'하였지 '改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개혁'은 말 그대로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즉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개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진지왕의 경우에는 재위 기간이 4년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진지왕이 즉위한 이후에 바로 '개혁'을 실시하였다면, 이것은 前王인 진흥왕대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지왕대의 정치를 '개혁'이라고 파악한 朴淳敎의 견해는

또한 왕권과 귀족세력과의 조화 내지 타협이라는 측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신라에 전래된 불교는 王室을 중심으로 수용되었고, 귀족들은 전통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륵신앙이 전래되면서 귀족들도 미륵에 대해서 일종의 친근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sup>78)</sup>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였던 것은 미륵신앙이 귀족들의 현실과 정서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즉위와 관련하여 '銅輪系'를 포함한 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진지왕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진지왕은 이러한 정책을 불교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진지왕 3년(578)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戊戌塲作碑를 통해서 알 수 있다.<sup>79)</sup> 戊戌塲作碑에는 진흥왕대에 설치된 중앙 僧官職의 하나인 都唯那가 阿尺干的 관등을 소유하고 지방에 파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진흥왕대의 불교정책이 진지왕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80)</sup> 또한 진지왕은 진자사와 마찬가지로 戊戌塲作碑에 기록되어 있는 都唯那의 僧官職을 가지고 있던 寶藏과 慧藏과 같은 승려들을 새롭게 동용하였을 것이다.<sup>81)</sup>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불교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진지왕의 廢位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政亂荒淫'만이<sup>82)</sup>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불교와 전통사상 내지는 불교사상의 차이 등과 같이 사상적인 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2003 앞의 논문).

78) 金杜珍, 1987 앞의 논문, 13-15쪽.

79) 任昌淳, 1958 「戊戌塲作碑小考」, 『史學研究』 1, 7쪽;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靑洛國史蹟開發研究院, 99쪽; 黃壽永 編, 1994 『韓國金石遺文』(제5권), 一志社, 42-43쪽.

80) 金德原, 1999 앞의 논문, 244-245쪽.

81) 牧園大 郭丞勳 선생님의 도움에 의한다.

82) 『三國遺事』 권1, 紀異2, 桃花女·鼻荊郎.

## 맺음말

지금까지 新羅 眞智王代の 王權強化와 彌勒信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에서는 불교가 공인된 法興王代부터 彌勒을 신앙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彌勒信仰이 이루어졌던 것은 眞興王代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진흥왕은 미륵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된 轉輪聖王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며, 戰死한 士卒을 위하여 八關會를 개최하였다. 한편 불교가 귀족 중심으로 수용되는데 미륵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륵신앙이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眞智王代라고 할 수 있다. 진지왕대 미륵신앙과 관련된 인물은 眞慈師(또는 貞慈)이다. 진자사는 미륵을 받들던 승려였지만, 그는 傳統信仰(土着信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僧侶郎徒'로서 花郎徒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彌勒仙花인 末尸郎을 받들었다.

진지왕이 미시랑을 國仙으로 삼은 것은 인재를 선발하여 자신의 새로운 세력으로 흡수하고, 이를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자사는 진지왕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親舍輪系'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미시랑을 찾는 과정을 살펴볼 때 진자사는 民衆指向的인 성격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末尸郎은 彌勒이 化作한 것이다. 미시랑은 전통신앙의 신성지역에서 祭儀를 담당하였던 司祭의 기능을 지녔으며, 神仙과 祭司長을 媒介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미시랑은 제례의 龍神思想의 반영물로 龍과 관련된 전통신앙이 불교를 매개로 하여 왕권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이와 함께 미시랑이 자신의 姓을 몰랐다는 사실도 당시의 전통신앙이 불교에 융합되면서 세력을 상실하여 가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미시랑이 진자사와 연결되어 불교의 미륵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국 전통신앙이 불교에 융합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시랑은 진자사의 천거로 진지왕이 즉위한 직후에 國仙이 되었는데, 7년 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忽亡所在'하였다. 미시랑은 자신을 국선으로 삼았던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진평왕을 중심으로 하는 '銅輪系'와 정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가 마침내 '忽亡所在'하였는데, 이것은 미시랑이 진평왕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결과로 보인다.

진지왕대에 미륵신앙이 유행한 것은 진흥왕에 의해서 비약적인 영토의 확대를 이룩한 이후에 전륜성왕의 이념을 확립하면서 理想國土를 건설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즉위 초기의 진지왕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륵신앙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며, 여기에는 왕권과 귀족세력과의 조화 내지 타협이라는 측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진지왕은 불교를 통해서 왕권강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진지왕은 진자사를 비롯하여 戊戌塢作碑에 기록된 寶藏과 慧藏과 같은 승려들을 새롭게 등용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불교세력의 도움을 받으며 왕권강화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진지왕의 廢位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政亂荒廢'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불교와 전통사상 내지는 불교사상의 차이 등과 같이 사상적인 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眞智王, 眞慈師, 未尸郎, 彌勒信仰, 傳統信仰(土着信仰), 花郎徒, 寶藏, 慧藏

## Strengthening royal powers and belief in Maitreya in the King Jinji's period of Silla dynasty

Kim, Deok-Won

Maitreya(彌勒) was believed since the reign of King Beopheung(法興王) when Buddhism was officially accepted but it was from King Jinheung(眞興王) that the faith was regularly established and from King Jinji(眞智王) that it was transmitted in recording.

The figure involved with faith in Maitreya in the reign of King Jinji is Jinjasa(眞慈師). he believed in Maitreya which had a character of traditional faith(傳統信仰). He recommended Misirang(未尸郎) as a Maitreya disciple to King Jinji and made him an elite youth of Hwarangdo(花郎徒).

Misirang has a character of traditional faith, his being expressed as Maitreya indicates that traditional faith in fused into Buddhism. However, Misirang becoming an elite youth complained of the politics of King Jinpyeong(眞平王) and disappeared.

Maitreya becoming popular in the reign of King Jinji resulted from trying to consolidate royal powers. In this process, King Jinji appointed Buddhist priests like Jinjasa, Bojang(寶藏) and Hyejang(慧藏) and pushed for the policies solidifying royal powers with a help of Buddhist influence.

Key Words : King Jinji, Jinjasa, Misirang, belief in Maitreya, traditional faith, Hwarangdo, Bojang, Hyejang